

우리학교 교육활동보호 프로젝트 11월까지 운영

도내 초·중·고 2곳 등 총 10개 학교 참여
학교별 ‘아침 등굣길 교육활동보호 캠페인’ 등 운영
전주교육지원청, 학교당 150만원 내외 운영물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9월부터 11월까지 ‘2025 우리학교 교육활동보호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2025 우리학교 교육활동보호 프로젝트’.

확고하고,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공모형 프로젝트로, 학교 특색에 맞는 실천적 활동을 통해 교육활동보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초등학교 6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10개교, 3,046명의 교원과 학생이 참여한다.

이에 학교별로 △아침 등굣길 교육활동보호 캠페인 △사제동행 함께 걷기 △사제동행 영화관람 △교육활동보호 슬로건 공모전 △교육활동보호 홍보 글쓰기 대회 △존중의 언어사용 캠페인 △사제동행 화분기르기·사진전 △캠페인송 챌리지 △교육활동보호 미디어 공모전(UCC) △존중 나눔, 온책 읽기 등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학교당 150만원 내외의 운영 물품을 지원하며, 일부 학교는 직접 방문해 캠페인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자발적 교육활동보호 문화가 학교 현장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7일 전북체육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결단식에서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과 전북체고 선수단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북체고 올해 전국체전 선전 기원’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체전 참가 선수 격려
전북체고, 13개 종목 123명 참가… 결단식 열어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17일 전북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국체전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에 따르면 유 권한대행은 이날 전북체고 강당에서 진행된 결단식에서 학교 관계자와 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17~23일 7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북체고 선수단은 13개 종목 123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이에 앞서 전북체고 다목적실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연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철령의식 강화 △최신 운동처방과 트레이닝 기법 습득 △지도자의 역할과 인성 함양 등 정립하고 안정적인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유 권한대행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주제로, 오선택 프랑스 앙궁

국가대표 감독은 ‘지도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또한 학생선수의 효율적인 학습관리를 위한 e-school 운영 방법, 스포츠 인 권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담은 교재도 배부했다.

유 권한대행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이룬 성과에 큰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중, 전북 여자농구 가능성·희망 보여줬다

전주기전중 여자 농구부
부총리배 전국대회 우승

전북교육청, 선수단 초청
포상 격려회 열고 격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층 강당에서 제3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주기전중학교 여자농구부 선수와 학교 관계자를 초청, 포상 격려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기전중 여자농구 혼합팀은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구성된 팀으로, 지난 8월 23~25일 상주에서 열린 대회에서 서울 구일중을 35대 34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김예린 학생(3년)은 대회 MVP로 선정되며 전북 여자농구의 저력을 전국에 알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층 강당에서 제3회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혼합팀 전국농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주기전중학교 여자농구부 선수와 학교 관계자를 초청, 포상 격려회를 가졌다.

이날 포상 격려회는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과 학교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기 권한대행은 “이번 성과는 전북 여자농구의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 다양한 전문스

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전북 여자농구의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16일 국립군산대학교 제1학생회관 고촌관홀에서 열린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이 머무는 전북, 기회의 땅으로’ 국립군산대, 김관영 도지사 초청 토크콘서트 성료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16일 제1학생회관 고촌관홀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초청해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청년이 머무는 전북, 일지리와 기회의 땅으로’라는 주제로, 국립군산대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 시민 등이 함께해 청년 세대와 지역 발전의 미래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와 도전의 이유를 소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전북이 가진 신재생에너지, K-문화 등 잠재적 강점을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전북을 떠나는 청년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공유하며,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또한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추진한 변화의 배경, 전북이 가진 산업적·문화적 강점, 2036 하계 올림픽 유치에 대한 노력, 청년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이후 학생들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며 소통을 이어갔고 청중들은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한층 가까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열띤 반응을 보였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김관영 도지사는 “청년이 머무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전과 기회의 땅 전북에서 청년들이 스스로의 비전을 펼쳐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군산대 자율전공학부는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교과목을 통해 각계 명사를 초청해 학생들이 인생 설계와 비전을 고민하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채로운 명사 특강을 이어갈 계획이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북대 농축산융합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농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

거점기관과 협력 산업화 견인

(재)농축산융합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가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방혜선 부장과 김대혁 센터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관식을 열고 공식적인 지정 사실을 알렸다.

이번 지정은 농축산 융합 생물 분야에서 거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화와 연구개발을 견인·육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센터는 이미 2,000여 점의 유용 미생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가축 생산성 향상, 온실가스 감축, 토양 개량용 미생물제제 개발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계기로 농축산 융합 생물 산업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연구와 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대혁 센터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농생명 자원 보존과 활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산업화 지원으로 농축산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그린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와츠 국제자격증 · 리플로우 자격증 취득 기회 제공

전주기전대 해양치유과, 아쿠아발란스와 협약

전주기전대학교 해양치유과(학과장 정미라)가 아쿠아발란스(대표 유철규)와 손잡고 미래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섰다.

17일 전주기전대에 따르면 이날 협약식은 본교에서 유철규 대표와 정미라 학과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해양치유과는 학생들에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와츠(WATSU) 국제자격증, 최신 수중치유 기법인 Reflow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미라 학과장은 “해양치유과는 전국 최초 학과로서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웰니스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며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철규 대표는 “산업체와 대학이 함께 해양치유 전문교육을 확립한다면 국내 해양치유 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 확대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취약계층 학생 대상 JBNU 파란사다리 참가자 모집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2025 동계 JBNU 파란사다리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 글로벌대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26년 1월부터 4~5주간 해외 대학과 기업 탐방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필리핀 세부의 산호세 대학교(University of San Jose-Recoletos), 베트남 하노이국립사범대학교(Hanoi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뉴질랜드 아라칸터베리 대학(Ara Institute of Canterbury) 등에서 어학연수와 문화교류,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현지 기업 탐방을 통해 전공과 연계된 지식과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어 국제적 시야 확대와 진로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전북대 국제협력과로 하면 된다.

양오봉 총장은 “JBNU 파란사다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세계 무대를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역대학 간 벽을 허무는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교조 전북 ‘교권보호 제도 행정 비리의혹 방패막이 아냐’

“교권보호 제도가 내부 직원의 방패막이로 변질된다면, 현장의 교사들은 이 제도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17일 ‘교권보호 제도, 행정 비리 의혹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전시체결관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권보호 제도를 명분으로 수사 대상 직원들의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권보호 제도를 행정 비리 방어용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청렴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심각한 일이다.

또한 정책국장이 ‘교육활동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입찰 심사와 같은 행정 영역까지 교육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교권보호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는 직원들의 방어 논리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전시체결관 입찰 비리 의혹에서 드러난 변호사비 지원 검토는, 지난 변호사 기자회견 사태가 결코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행정 비리 은폐의 도구로 쓰인다면, 교권보호 제도라는 이름 자체가 현장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1월 14일까지 하반기 산업안전보건 순회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 하반기 산업안전보건 통합 순회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점검 실적 없는 기관 △올해 산업재해 발생 기관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은 기관 △점검 신청 기관 등을 선정해 추진한다.

특히 학생 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여부 △현업업무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등이다. /장은성 기자